

# 東大新聞

김주일이언

인사하여 수험은 침범당하지 않고 보고나 불만을 일으키지 않으며 남이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더라도 지혜로 침묵함으로써 편안히 한다.  
(법규경·자인품 128절)

1997년(황기 2541년) 9월 8일(월요일) 제 1230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 -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 부주장 조장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 1백주년 본부 불상 복장 사경지 20일까지 접수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 이하 기념사업본부)는 발전기금 1백만원 이상 기부·약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상 봉안 희망 및 사경지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기념사업본부는 90주년 기념문화관에 20일경 개원할 법당인 대각전에 1차로 1천5백불의 불상을 안착할 예정이며 봉안형태는 소불상 내부에 개인 또는 가족 이름을 전통한지에 기록한 사경지와 함께 영구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경이란 불교경전을 베껴서 쓰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옮겨 쓰는 의미가 아니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이번에 불상 봉안과 함께 넣어질 사경지는 이미 불교경전 중 하나인 반야심경이 연하게 인쇄돼 있어 희망자들은 쉽게 기필만 하게 돼 있다.

이에 기념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그 뜻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봉안희망원 접수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기념사업본부는 본교 홍보와 발전기금 조성에 자원봉사로 활동할 5명의 명예의원을 위촉했다.

## 본교·몽골국립대 학술 자매교류체결

지난 3일 본교는 몽골국립대학교와 학술·자매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각급 처장들과 몽골국립대의 GANTISOG TSERENBODOM 총장과 LODOYSAMBA SEREETER 국제교류처장이 자리한 가운데 교무회의실에서 학술·자매교류협정을 기했다.

한편 송석구 총장은 "본교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교의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교류협정 인사말을 남겼다.

## 보직인사 발령

학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자연과학대학장=장재호(수학교육)

△개교백주년기념사업 경주지부장=홍광표(조경학)

△학술연구부장=이계영(전산학)

(이상 9월 1일자)

## 영문과 이진영양 슈퍼모델 1위입상

SBS와 나드 리화장품 공동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린 '97 한국슈퍼모델 트로피대회'에서 본교 이진영(영문2)양이 1위를 차지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진영양은 "자신있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고 3천만원의 상금과 다이어몬드 세트를 상품으로 받았다.

# 비대위 '학생회' 공백 메우기에 분주

서울캠-오는 9일 인준, 해오름식 오는 10일  
경주캠-뒤늦은 구성... 학내 게시판·동창회비 해결에 주력할 듯

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재하·국문4 이하 비대위)은 오는 9일 열리는 하반기 대표자회의에서 비대위 활동을 인준 받고 2학기 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유재하 비대위위원장의 사회로 중앙도서관 앞에서 오후 1시에 열리며, 중앙기수 학생회장,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장, 과학생회장, 동연 분과장, 학부·계열 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안건은 비대위의 활동보고, 집행부 인준, 하반기

사업계획안 발표 등이며 특별한 안건으로 '한총련 사수를 위한 민족 동국 학생대표자 결의문'이 상정될 것이다.

지난 주부터 오늘(8일)까지 실시한 총·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원 서명운동을 평가, 논의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진옥 부총학생회장의 선고공판에 탄원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전체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안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캠은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문식·불3)위원장이 뒤늦게 선출돼 이제 서야 비대위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총회를 통해 총학이 탄핵된 후 중앙학생기수가 부재한 상태로 4개월여를 보낸 채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방중에 비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후속한 질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차원의 사과문이 나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비대위 집행부나 사업계획

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늘(8일) 열릴 중운위를 거친후에야 조직에 대한 인준과 사업계획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또한 학내문제에 있어서 경주 현재 비대위는 지난해 논란이 컸던 동창회비의 납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해 총동창회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총동창회와 서울캠 총학생회와의 논의자리에서 경주캠 학생회가 배제된 채 합의된 동창회비가 이번 학기 등록금에 일반적으로 고지됐기 때

문이다.

비대위는 지난 주 2차례의 중운위를 통해 이미 등록금 납부에 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오늘 소위원회가 상정할 초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생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시물과 현수막 문화개선 방안'과 관련해 게시판 증설을 학생처에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안이 이행되기 전에 이 제도를 학교측이 일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보리수

### 교정의 불상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서울 캠퍼스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정에 우뚝선 불상이다. 흔히 불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엄연한 석가모니불상이다.

아마도 모르긴해도 이 불상앞에서 한번도 사진을 찍지 않은 동국인은 없을 것이다. 졸업기념 앨범 촬영때에는 언제나 전속 모델이 되며, 입학식·졸업식때에는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 성상 앞의 항상 거룩한 것만은 아니다.

80년대의 학생시위 때에는 성도의 광장이 되었으며, 88년도 교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학생들에 의해 보직자들의 집기가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요즘은 금요일이면 각 동이나 고등학교 동창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 철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상주위에서 열린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불상의 주위에는 사원상이 있으며, 또 전면에는 팔정도상을 상징하는 잔디밭과 석담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의 분수대에는 팔공덕수의 감로수를 뿜어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은 이 불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 불상은 64년도 총학생회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조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원로 조각가인 연희 조형관의 관장시며, 홍익대학교 교수였던 김연중 선생의 작품이다. 선생이 30대에 조성한 것으로 늘 대표작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 불상의 특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중생들을 향해서 법문을 풀리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라고 한다. 오른발을 내딛다보니 왼쪽 어깨가 약간 기울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발이 앞으로 나가면 지면이 어깨를 기울게 되어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깨달음을 얻은 젊은 석가의 모습은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주물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흠이 많은 것을 이번엔 새롭게 개조하여 완전하고 아름답게 봉안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어 당당한 이 젊은 석가의 모습을 불매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 고수동정

▲김영민(영문학)=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일랜드 국제 홉킨스 섬머스쿨에서 "Hopkins and Iacan"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김재홍(영문학)=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일본대학 영어교육학회 참가.

▲김병식(화학공학)=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국제화학회의 참석차 중국 방문.

▲김주필(응용생물학)=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됐던 일본박람회 참석.



지난 5일 열린 '학부모 간담회' 중 학부모들이 동국대 어학실습실을 탐방하며 학교 측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

## 한가위 맞아 나눔의 자리 마련

교수회·직원노조, 청소·경비용역 초청

교수회(회장=김기억·사회학)와 직원노조(위원장=김정숙)는 오는 11일 오후 5시 다화관 교직원 식당에서 '교내 환경미화과와 경비에 힘쓰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맞아 나눔의 자리'를 갖는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를 맞는 이번 나눔의 자리에 대해 김기억 교수회장은 "단지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었으나 직원노조와 협조하여 다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것을 직원노조와 교수회의 공동 사업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이날 청소용역 70여명과 경비용역 20여명과 식사를 한 후 학내 시환 학생 50명을 포함한 1백40여명에게 추수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정숙 직원노조 위원장은 "여러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한가위인 만큼 나눔의 의미가 클 줄 안다"며 "작은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고 나눔의 자리를 준비한 소감을 밝혔다.

## 취업과-졸준위 공조필요성 제고

명분보다 취업준비생 위해 각자역할 조율해야

서울캠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과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 이하 졸준위)는 취업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졸업생들을 위해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부서이다. 하지만 이 두 부서사이

에 서로에 대한 역할 분담과 명분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어, 취업준비생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졸업별 취업설명회 등 명칭과 내용까지 한결같은 행사들을

취업과와 졸준위는 매년 자신들의 이름으로 각각 개최하고 있다. 졸업별 취업설명회, 인적성 검사, 모의토익 등 주체는 다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공히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3·4학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과와 졸준위의 '이름내세우기'는 여러모로 혼선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얼마전에 실시된 모의토익의 경우 졸준위측은 4학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60%정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시

험을 취소하였지만 취업과측은 단독으로 모의토익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당초 취업준비비율 하는 4학년대상에서 2·3학년까지 확대 실시 되어 재학생들을 위한 시험에 지나지 않았다.

오는 25일 '취업특강 및 실전 모의면접'의 행사 역시 뼈저릴 조정이 보이고 있다. 이 행사는 취업과 주최로 실시되지만 진행에는 졸준위측의 보이지 않는 힘이 큰 몫을 수행되고 있다. 더불어나 학생들의 대면 흥

분이다. 이와 관련 졸준위측은 "취업과는 우리들이 행사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졸준위 명의로 광고가 나가는 것은 꺼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취업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동원에 있어 졸준위의 역할은 조화시키지 않은 채 관성화 되고 있는 행사의 기획과 준비가 바로 불협화음의 원인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쉽고도 간단한 것이다. 누가 우위에 서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난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자세로 공조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취업관련 행사와 정보 제공에 있어 보다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과와 졸준위의 '명분' 싸움에 취업준비생들의 '실리'가 다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진 기자

졸준위 위원장은 "비록 재정적인 부분에서 학교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 졸준위의 역할이 더 큼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취업과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졸준위는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동일 면에서 각기 서로의 장점과 역할이 있다. 이러한 서로의 역할을 조화시키지 않은 채 관성화 되고 있는 행사의 기획과 준비가 바로 불협화음의 원인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쉽고도 간단한 것이다. 누가 우위에 서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난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자세로 공조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취업관련 행사와 정보 제공에 있어 보다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과와 졸준위의 '명분' 싸움에 취업준비생들의 '실리'가 다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진 기자

수습기자 모집광고

## 별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 동대신문사에 진짜 내자리가 있기 때문에

**알림**  
추석 연휴의 수습기자 모집 관례로 오는 15·22일 휴간합니다.  
제 1231호는 9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모집분야 : 취재·사진기자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매 (지인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원서접수 : 서울캠 - 9월 19일 (금) 오후 5시까지 경주캠 - 9월 19일 (금) 오후 5시까지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 작성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캠 - 9월 19일 (금) 오후 6시 경주캠 - 9월 19일 (금) 오후 6시 장소는 서울·경주 캠퍼스 본사 회의실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특전이 부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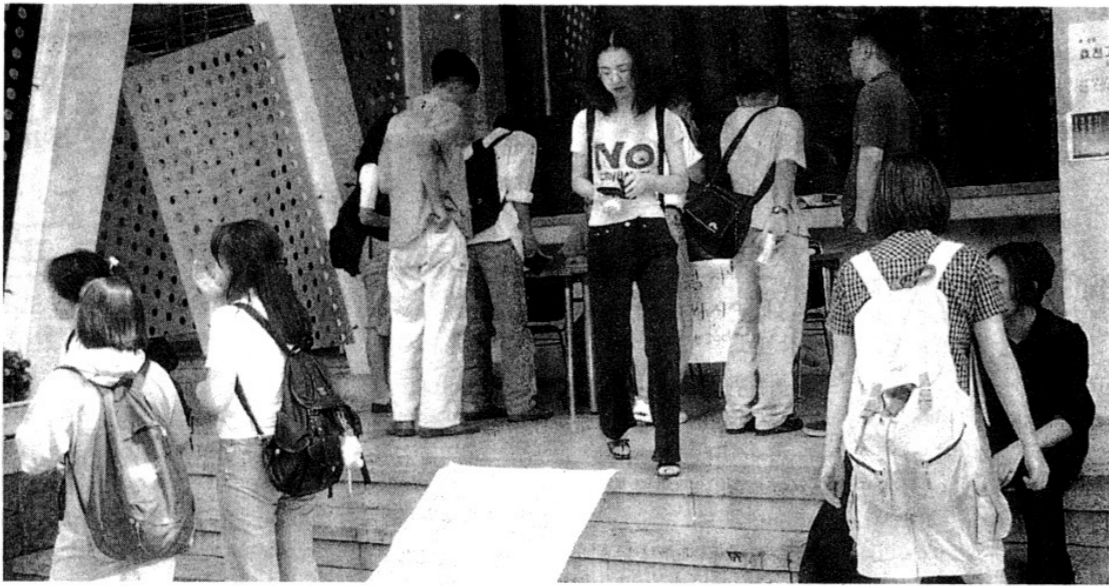
# 10일 중앙도서관 앞 '한가위 한마당' 진행

## 떡잔치·널뛰기 등 다채로운 행사... 12일 10시 귀향버스 출발

제 13대 학생복지 위원회(위원장=이관영·광교3)는 한국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한다.

동국대이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한가위 한마당은 떡잔치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등 우리민족 전통놀이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상품도 주어진다.

한가위 한마당에 대해 이관영 학생복지 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인 지방인 학생들에게 고향편을 마련했고, 서울에 남는 동학인들을 위해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다"며 "동학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나 모두가 하나 되고,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고향 앞으로... 사진은 학생복지위원회가 '한가위 귀향 차요 예매'를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 녹원스님 개강법회 오는 23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오목원 이사장을 초빙해 개강법회를 실시한다.

개강법회는 학생, 교직원, 일반 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삼귀의 △창법가 △입정 △설법 △정근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정각원에서는 이법산 원장의 참선 교육이 있으며 학생, 교직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법대, 두리제 개최 심포지엄, 모의재판 등

법과대 학생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법과대 학술제인 두리제를 개최한다.

이 학술제는 민주법학회, 사법학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4개의 법대 소모임 주체로 심포지엄, 모의재판 등으로 이뤄진다.

행사일정은 △24일=민주법학회 심포지엄 '권력형 비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25일=사법학회 심포지엄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26일=공법학회 심포지엄 '전자주머니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법적 고찰' 등이며 각 심포지엄은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세미나 2실에서 오후 3시에 개최된다.

또한 형사법학회의 형사모의재판 '학원폭력의 헌법적 고찰'은 24일 오후 6시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 "아직도 따뜻한 사회를 새삼확인"

### 직원노조, 암투병 중인 휴직 조합원에게 성금 전달

직원노조(위원장=김청옥)는 오는 한가위에 휴직 조합원인 이진희, 고성국씨에게 정성어린 성금을 전달한다.

총무처와 기관실에서 일하던 각각 이진희씨와 고성국씨는 몇 달전 암 선고를 받아 휴직원을 내고 요양에 들어갔으나 가계 형편이 어려워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직원노조는 지난 17차 운영 위원회에서 이들을 위한 성금모금을 안건으로 상정, 결의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합원·비조합원에게 모금운동을 펼쳐 총 5백 54만원을 모았다.

노동조합 최일우 사무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든 때이긴 하지만 많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학교의 직원들이 정성어린 성의를 보여주었다"고 성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직도 여전히 따뜻한 사회임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 미담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강과목 취소 신청

교무과(과장=차준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단대 교학과에서 수강 과목 취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97년 2학기 개설 과목중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목 수강자에 한하며, 수강 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취소한 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되며 학점 인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

###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동국관 5층 설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가 동국관 5층에 1기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버스카드 충전을 위해 충전소를 찾아가거나 야간에 충전할 수 없는 학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비용도 5% 절감받게 되었다.

현금·직불카드의 경우 충전하는 금액만큼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며 수수료는 없다. 신용카드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로 충전되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중앙도서관을 진단한다 ② - 공간

## 원서등 새책, 서고 바로직행 오밀조밀한 공간 진퇴양난

중앙도서관(과장=임호일·독문학 이하 중도)에는 열람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존재한다. 대출실을 비롯해서 휴게실, 시청각 자료실, 전산실 그리고 각 부서들까지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이 가득한 상황이다.

여기에 하루평균 1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며 평균적으로 1천여권을 2층 과제 도서실에서 대출해주는 현실과 함께 이용자에 비해 좁은 계단과 휴게 공간들을 감안하면 중도는 이미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여유공간은 만들 수 없다"고 토로하는 한 도서관 관계자의 말처럼 글자 그대로 포화상태이다.

부분개개체로 운영되는 2층 과제도서실에는 약 7만 여권의 책들이 비치돼 있다. 전체 장서량 60만권에 비해 소수의 책들만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매년 들어오는 1만5천여권의 단행본들 중 원서처를 들어 오자마자 바로 서고로 향하는 책들도 있다.

3층 참고열람실의 전면 개개체로 이어 2층 과제 도서실의 완전개개체로 이뤄지기 힘든 까닭도 이처럼 한정된 서가공간이 장서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는데 있다. 장서가 위치할 공간도 부족함에 개개체가 다 뒤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서관 전체면적 3천여평 중 앞서 언급한 대로 2천여석이나 되는 열람실. 그밖에 부수 시설

들로 인해 어느 한 공간도 여유롭지 못한 현 상황에서 완전개개체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3층 참고열람실, 학위논문실의 개개체 또한 교수회관의 일부공간 전용을 전제로한 서고재배치를 통해 가능했을 뿐이었다.

이번 겨울 방학기간 중에 도서관 개관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 건물 좌측에 있는 좁은계단을 건물 중앙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외부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장실 공사 등 여러 내부공사도 같이 이루어져 "이러한데 새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대략 2백여평 정도 될 것"이라고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밝히면서도 "눈에 띄게 보이는 여유공간은 없을 것"이라 덧붙여 공간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여전할 것을 시사했다. 게다가 지난 85년도에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바 있어 더이상 도서관의 확충공사는 불가능하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책을 고르기 위해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이런 부족한 공간문제는 만성·포기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도서관 실무담당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골치아픈 난제로만 남아있다. 제3캠퍼스 신축에 따른 학생이동과 장서이동, 개개체 확대방안, 내부공사 등 여러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도서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공간문제는 본교 전체공간문제와 맞물려 머구름만 드리울 뿐이다. 최정식 기자

## 회전무대

### 수업 끝!!!

0...1시간 수업에 55분은 사람이 다리는 시간(?)

모 교양과목의 강의시간은 5분(?)이라고. 이유인즉, 항상 5분에 1명씩 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가 시작되려면 수업이 거의 끝난 후라고.

이에 제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학생들,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업이 시작된 후 바로 종이 울리는 거죠."

### 조삼모사

0...전·노 추석전 사면 전 노(NO)!

지난 2일 YS는 이회창대표가 선거권 국민투표를 위해 선출리(?) 내놓은 '전·노 추석전 사면'에 못 박기를 꾀였는데, 한때 YS가 핑기는(?) 것은 '사면'이 아니라 '추석전'이라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임기중 사면'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그의 행동은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에 회전무대자 알, "아예 원숭이를 데리고 정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 깜짝쇼!

0...'방송의 날' 존재의 이유.

지난 3일 각 방송사에서 생일 잔치를 생중계 하던 중 베트남에서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는 데.

케이블 뉴스 채널을 제외하곤 각 방송 3사는 짧게나마 사고 소식을 보도할뿐 사고 경위나 국내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들른 희열만을 연출해 방송을 알려줄 의무와 국민이 알 권리를 동시에 무시했으니.

때마침 TV보던 시청자 알, "단 몇초짜리 자막리모 내비친 추락사고 보도는 생일 맞은 깜짝쇼가 아니었나요?"

### 양다리 걸치기

0...속까지 보여줬으니 "야하다 아해" 자민련의 김총재가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해 달라는 듯 온갖가지 해괴망측(?)한 포즈를 국민들 앞에서 한 모양. 실상을 알아보니 '대통령 임기중에 내각제로 개헌하면 대선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신한국당에게 폭탄선언. 말하고 보니 국회의원회가 살벌해 '이번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오라가라.

이에 김총재의 사랑노래 흐르니 "알고보니 다른 당에 양다리 걸쳤다는 군...!!"

## 조기졸업신청 및 복수전공 접수

'97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 및 '97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접수기간: 97.9.9(화)~9.11(목)
2. 접수처: 교무처 학적과
3. 지원자격
  - 가. '98년 2월 전기 졸업대상자 또는 '98년 8월 졸업대상자
  -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단, 4학년 2학기는 제외.
4. 제출서류: 복수전공 이수지원서(소정양식) 1부.
5. 유의사항
  - 가.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수여일자가 동일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함.
  - 나. 이번 복수전공신청은 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7번째학기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신고과과정에 의한 복수전공 신청은 11월중 실시 예정임.

교무처장

## 조기졸업 신청

'97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이변학기에 7학기 등록을 필한 4학년 재학생으로 취득학점이 금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이고 7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 이상(2학점포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2. 신청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3. 제출서류: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청기간: 97.9.8(월)~9.10(수)
5. 참고사항: '98년도 2월에 조기졸업과 동시에 구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복수전공 이 수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무처장

## '97 명사초청특강

이 가을, 우리것을 찾는 동국문화기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우리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얼마나 당당할수 있을까요? '95년 조선일보 최고의 열독률을 기록한 '우리문화 이웃문화'의 저자 목수(木壽) 신영훈(申榮勳)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문화와 이웃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문화의 새로운 시각을 슬라이드와 구수한 강의로 열어드립니다.

- 강사: 목수 신영훈 선생님
- 주 제: 우리문화 이웃문화
- 일 시: 1997년 9월 23일 화요일 17:00-19:00
- 장 소: 본관 중강당

학생처장

##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안내

민족동국 2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권위로 인해 중앙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기에 9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칙 3장(학생대표자회의) 20조에 근거하여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일시, 장소, 안전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인원: 비상대책위 활동보고
- 논의인원: 1. 비상대책위 집행부 인준  
2.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 특별인원: "한총련 시수 혁신을 위한 민족동국 학생대표자 결의문" 상정
- 일시: 1997년 9월 9일 화요일 1시
- 장소: 중앙도서관
- 참석자: 중앙기구 정·부학생회장, 각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장, 각과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학부·계열학생회장

민족동국 학생대표자 여러분의 참석과 적극적인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29대 총대의원회

# 득표술수에 그친 전직대통령 사면설

##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대선 후보 재평가해야

한국의 현대사는 비극으로 점철되어왔다. 그 근본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분산되지 않은 전체적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표면적 제도에 있어서야 어떻든 실질적으로 분산되지 않은 전체적 권력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소수집단에 의하여 독점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민주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독재정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국민대중은 권력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권력의 객체로 전락되어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하여 언제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몰라 항상 불안감에 젖어 살기 마련이다.

전체적 권력은 전체적 공포를 낳고 전체적 공포는 전체적 고립을 낳고 전체적 고립은 전체적 무력(無力)을 낳고 전체적 무력은 전체적 복종을 낳고 전체적 복종은 다시 전체적 권력을 낳음으로써 전체적 권력의 확대재생산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의 특징이다. 이러한 가설은 이승만 독재정권보다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더 악독하였고

박정희 유신독재보다는 전두환 학살정권이 한층 더 악랄해졌다는 사실에 의하여 명쾌하게 검증되었다.

정치권력이 일단 이같은 전체적 권력의 악순환 계도에 진입해버리면 여기에서 탈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유혈투쟁과 독재원종의 처단 그리고 반동의 극복이라는 삼단계의 민주화 성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 민주화성업의 제1단계인 유혈투쟁을 통하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을 선고케 함으로써 비극의 원천인 전체적 권력의 악순환 계도에서 영공의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값진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귀중한 시점에서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시사논단



이 광우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

독재정권에 의하여 탄압받고 부유되며 학살되어 썩고 썩어서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비옥한 밑거름이 됨으로써 민주화투쟁의 씨를 싹트게 한 재야 인사들의 덕분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아니 인류의 이름으로 존엄하게 처단되어야 할 반민족적, 반인륜적 정치지도자들이 명예롭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가는 쾌곡된 전통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화합이라는 상투적 명분으로 중죄를 선고받은 두 전직대통령들을 사면하자는 주장은 개인이나 특정집단 또는 특정 정당상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사의 진로를 굴절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알박한 득표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권탈취 주범들과의 화합도 과연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국민화합이라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독재원종의 처단이나, 유혈투쟁의 계속이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사설

## 총동창회비 납부하자

내일 모레면 개교백주년을 맞이하는 대학의 동창회가 아직 번듯한 동창회관 하나없이 남의 건물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 내일이야 어찌되었건 백수를 맞은 역사치곤 추태하기 짝이 없다. 동문들과 동창회 사무처 직원들은 동창회와 학교발전에 노심초사하며 해마다 회비나 기부를 통해 수천만원까지 회사한다. 내가 나고 자란 바탕이 된 동국이 그 위엄과 품위를 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하지만 정작 대학의 품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장 이삼년후엔 동문이 될 재학생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 왜 '모교'는 그토록 중요하게 '본교'는 홀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비대위에서는 총동창회비납부 고지서발급과 관련해 처음에는 합의조문 이 유실돼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합의문은 발견했지만 등록금과 동창회비의 통합고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환불받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수년동안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위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에야 겨우 성사시킨 일을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아무런 논의도 없이 파기한 것이다. 우리에게 납부자부로 동우정학회기금이 확충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아쉬움이 있다. 주변상황과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구에만 골몰하는 학생지도부의 형식주의이다.

서울시내의 유수대학들 중 동창회관이 없거나 졸업대상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받지않는 학교는 본교가 유일할 것이다. 모두들 동문과 재학생이 유실돼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합의문은 발견했지만 등록금과 동창회비의 통합고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환불받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수년동안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위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에야 겨우 성사시킨 일을

### 생협 출범 얼마남지 않았다

## 학교-생협간 자본·경영안 타결

### 잉여금 학교에 이월...생협사업에 재투자키로

대학내 구성원들의 생활 복지와 편의를 위해 발기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협 발기인회는 출범을 하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에 발목을 잡혀, 보다 공식적이고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생협 출범이란 무엇을 뜻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생협 발기인들이 모여서 각 구성원별 대의원·생협 이사장 선임, 생협 정관·규정 설정, 총회 개최, 사업계획 결정,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축제의 장이 생협 창립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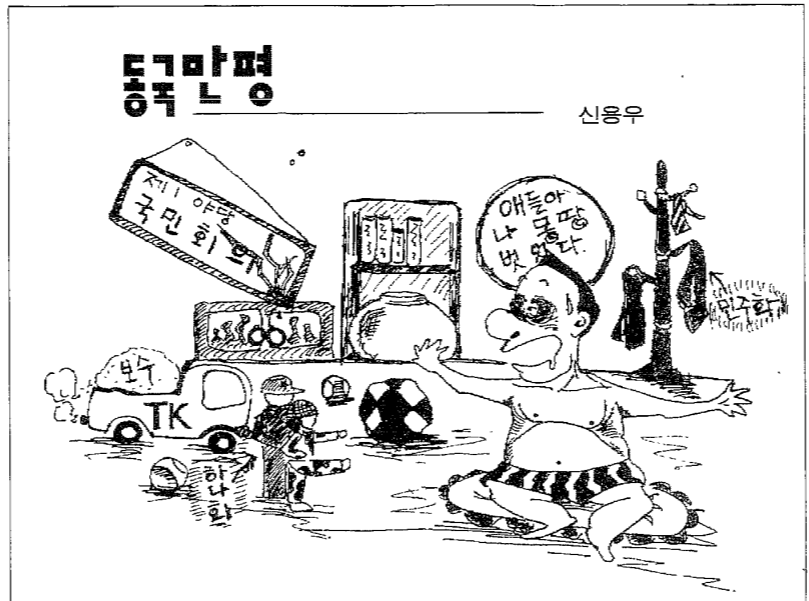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협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나 사업자 등록 등 법적 문제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생협법을 통과시키고자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재경원 차관 내부결재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다.

생협이 출범을 하게 되면 사업이 보다 공식적 성격을 띄게 되고, 사업계획이 만

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구체성을 갖게 되므로 학내 복지가 한차원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의미는 조합원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생협 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음에도 여지껏 생협 출범이 관통을 겪은 이유는 학교와 생협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협법이 없어서 법인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생협은 학교의 법인명인 '동국학원'을 쓰고 있는 현상황에서 무엇보다 학교와의 관계설정이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있었던 생협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생협은 둘 사이의 합일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생협 출범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95년도와 96년도 생협 잉여금 1억 4천 5백여만원의 학교에 이월한다 △생협요구에 따라 전액 생협사업에 쓸 것, 집행결과 공개 두가지의 전제조건 하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학교에 이월한다 △생협 이사장 선출 후



학교(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생협 경영에 대한 학교법인의 지도와 감사를 받는다. △동국 생협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의 잠정적 시행이다.

이번 학교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견 배 생협 사무국장은 "학교와 생협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범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차적인 문제는 매듭이 지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문제와 구성원의 태도

## 성급한 전·노사면 논의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풍요로운 한가위의 참뜻을 무색케할 사태들이 종종 벌어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천의 근로자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중소기업 사장들, 치솟은 물가 속에서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맨 아주머니까지 한가위를 한가위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위기가 만이 전부는 아닌 듯 하다. 올해 말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고되었던 바, 한가위의 월식이 벌써 시작된 기운이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민족적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민족적 죄인'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억측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내년부터 정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입후보한 대권 주자라는 것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신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보려는 정치적 목적에

서 건의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한다. 또한, 여권의 해피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견제해야 할 야권마저 은근히 TK표를 의식했는지 그들과 한편이 되어 맞장구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의 심정은 '가위질'을 당한 기분이다.

우리는 5·18과 군사독재 시절의 암울했던 기억들을 아직까지 떠올리고 있다. 그들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죽어 갔다는 점을 또 다시 가슴깊이 새겨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전·노 사면이 '정치적 노력'로 국가적 행사나 민족적 잔치에 등장한 국경일과 짝지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안이다. 이점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김대통령 자신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면이라는 제도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하는 전노사면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예는 총부리다. 전노의 풍요로운 한가위를 위해 그들에 의해 희생된 넋들과 민주시민들의 한가위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되겠는가.

正道경영 · 초우량 LG

# 사랑과 사업을 번영시킬

## 고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최상의 팀워크를 갖춘 초우량 정보통신회사 - 세계 최초 CDMA기술 상용화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회사 - 정도경영의 믿음 아래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회사 -

LG텔레콤의 019 PCS가 그동안 예약가입자 모집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10월 1일 전국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고객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LG텔레콤의 기업이념인 사랑과 사업을 주제로 하는 TV-CM, 슬로건, 브랜드 심볼마크 아이디어의 공개모집입니다. 019 PCS에 대한 고객의 바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충실히 저희의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019 PCS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시지요.

### 공모 내용

주 제	고객의 사랑을 깊게 하고, 사업을 번영시키는 LG텔레콤 019 PCS
공모	TV-CM ① 콘티는 15초 기준 ② 콘티와 스토리를 각각 A4 용지에 정리
슬로건	019 PCS의 브랜드 특성을 나타내는 문안을 10자 이내로 A4 용지에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설명
부문	심볼마크 ① 019 PCS 로고 포함 ② 심볼크기 15cm×15cm ③ 색상은 3도 이내 ④ A3 규격으로 제출
상금 및 상품	• 으뜸상-부문 통합 1인/성급 1천만원(세금포함) • 백금상-각 부문 1인/각 성급 5백만원(세금포함) • 보석상-각 부문 2인/각 성급 2백만원(세금포함) • 두우상-각 부문 10인 이상/LG PCS본(LG1000F) 증정 및 무모기
응 모 처	우편번호 135-6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8호 공모 담당자 말
응 모 마 감	97년 10월 20일-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수상작 발표	97년 11월 3일 자 스포츠서울
문의 및 안내	LG텔레콤 홍보실 광고 담당 02)3466-3323,3324

x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작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 저작권도 LG텔레콤으로 귀속됩니다.  
x 제출용모양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메신저, 사업의 동반자-

# 이19 PCS

• 예약가입 문의: LG 019 PCS고객센터 Tel:080-019-7000, (02)3416-7000

1997년 10월 15일 09시 00분까지 접수

• PC통신: GO LG019 • 인터넷: http://www.lgtel.co.kr

동약로



청소년

"아자도 땀났는데 낱말까지" "뭐하고 죽배질래?" "우리 담배나 한 대 피우지"라며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장충단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군다나 옛날 얼굴의 여학생들까지 한데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청소년문제가 위협수위에 다다른 것을 보여준다.

장충단공원에는 노인과 지나다니는 어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은 공원 구석에 앉아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꾸짖는 사람 하나 없고 '요즘 청소년들 문제야'라고 눈살만 찌푸리며 그 모습을 슬그머니 회피한다.

한 대학생이 "교복입고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도 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라며 청소년들에게 꾸짖었고, 청소년들은 마치못해 담배를 껐지만 "오늘 재수 되게 없네"하며 그 자리를 피한다.

지난 7월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외치면서 막상 뒤에서는 "내 자식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라며 청소년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얼마전 비행청소년을 소재로 한 '나쁜 영화'라는 영화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만큼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인지했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못하겠다"고 단념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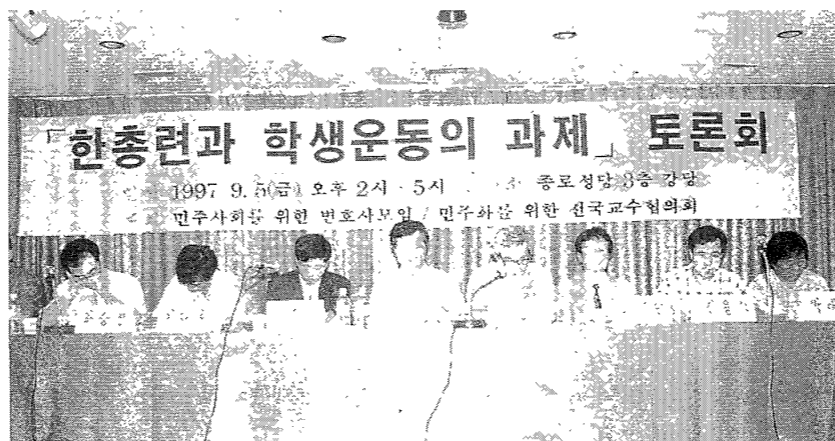
지금 이 시간에도 담배피우고 술마시며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태반이고 그 탈선의 현장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어른들의 모습 또한 계속되고 있을 터이다. 말로만 청소년보호를 운운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따뜻한 충고 한 마디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필요하지 않을까?

오인택 기자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주최로 지난 5일 오후 2시 종로3가 종로성당에서는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위기에 처한 학생운동의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의 주제 발표와 토론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박겨울 교수(민교협·상명대 영어교육과)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총련의 민주화 바람다"



김영규 교수  
민교협·인하대 행정학과

정권은 신성한 교육의 요람인 대학교 정에까지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운동 탄압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억압하고 보수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학생운동은 물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장 주된 무기는 국가보안법이다.

한총련 탄압에 맞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철저한 자기비판과 운동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선도성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오는 한계와 오류의 문제를 시급히 극복하고, 투쟁 방법을 바꾸는 등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정취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반민주법 철폐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근본적인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총련과 학생운동은 다양한 학생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포용해야 한다. 한총련 대의원과 연 2회 정도로 제한된 논의구조 문제 등을 재고하면서, 일반학생들과의 공유 및 평가구조 등을 마련해 한총련의 민주화와 올바른 학생운동의 구조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정서 고려해 대중성 확보해야"



박수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은 '통일'이라는 전국민적 바램을 앞장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에 있어 대중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한총련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투쟁구호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과 일반학생들에게 어느정도 괴리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북한이 개혁되어야 할 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 많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대북관을 명쾌하게 밝히거나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본다.

따라서 한총련이 남한사회내의 지주적인 학생대중조직이라면,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활동을 해야만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국민·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학생운동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한 한총련 지도부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 그야말로 자위적 수단의 범위내에서 건전한 집회와 시위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한총련 탄압은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철수 등 한총련이 내세우는 것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도 그 논리와 과정이 다르므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총련의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생성되어 주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논리로서 검증되고 비판되어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로 발전되거나 도태될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에 의거해 처벌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총련 대변인 불참·소수참여 등 아쉬운 자리

김영규 교수와 박수근 변호사의 주제 발표 후 7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웅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토론에서 한총련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올해 출범식 사건 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장기적으로는 한총련의 사상·조직·활동방식의 변화를 제시했다. 한총련 비주류인 강현욱 전학추본(준) 임시대표(국민대)는 학부제나 여성문제, 학회, 환경 등 캠퍼스 내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일반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총련을 평가하며,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호 참여연대 기획부장은 학생이라면

전문적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총련 간부가 졸업 후 사회적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규열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한총련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해야 하고, 정세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한 후 "지금 한총련이 갖고 있는 병을 우리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으로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대학생들이 인권의식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용석 민운탄범대위 집행위원 겸 노동정치연대 의장은 대중성을 확보한 운동이 학생운동이며 노동자와 민중과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변한 만큼 학생운동의 변화가 필요

하다. 다른 곳에서 다르게 시작하는 미래의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하승찬 경실련 정책실장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났고,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총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한총련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해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한총련 문제는 비단 사회 일부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계자만이 모습을 보이고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자리였다.

김용환 기자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1. 총론
2. 미디어 정치' 이렇게 지리 집아야 한다.
3.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4. 동대생이 보는 대선
5. 대선의 구도와 윤곽
6.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미디어 정치 자리매김 시민 주도적 참여가 좌우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정치, 통일 정치 등의 폐해가 각종 선거 때 마다 지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정치 무관심, 정치 불신감 등 정치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부정적 정치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정치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써 전자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미디어정치의 가능성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정치는 전자매체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론매체다. 언론매체 중에서도 방송매체,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첫째, 유권자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매체이고, 둘째, 그 신속성 및 동시성이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뛰어난 매체이며 셋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특성, 정치적 능력 및 활동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듯이 미디어 정치에도 단점이 있다. 첫째, 미디어를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은 그 특성상 이성이나 양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상매체를 이용하므로 정책보다는 '이미지'나 '정서'가 강조되는 경향이 강해서 자칫하면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가벼운 오락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미디어정치가 너무 강해질 경우 민의를 결리내고 수렴하는 장치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막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선거산업'과 '광고정치'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방식의 고비용 정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제 막 싹을 트기 시작한 미디어정치가 시민의 정치 참여를 고양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 규제 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감시기구의 역할을 맡는다는 사명감으로 시청자운동단체 등 시민 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정치의 공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공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과 후보자들은 상업적 광고매체를 경쟁적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금권정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의 상품화·마케팅화를 통하여 유권자의 정치주권을 소비자선택권의 차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 캠페인, 정치적 선정주의, 정치적 메시지의 단편화, 파편화라는 부정적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정치가 시민을 위한 도구로 자리잡고 저비용, 고효율정치를 위한 매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정치를 정치권과 언론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김 무 곤  
신문방송학과 교수

One & Only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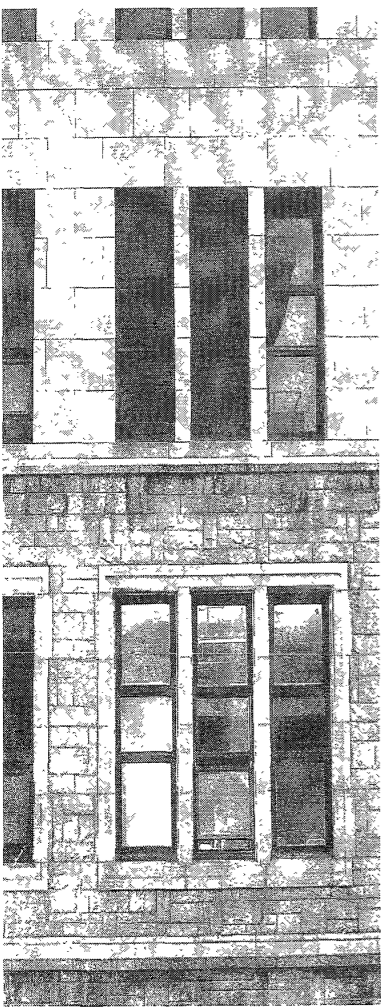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파천 신사육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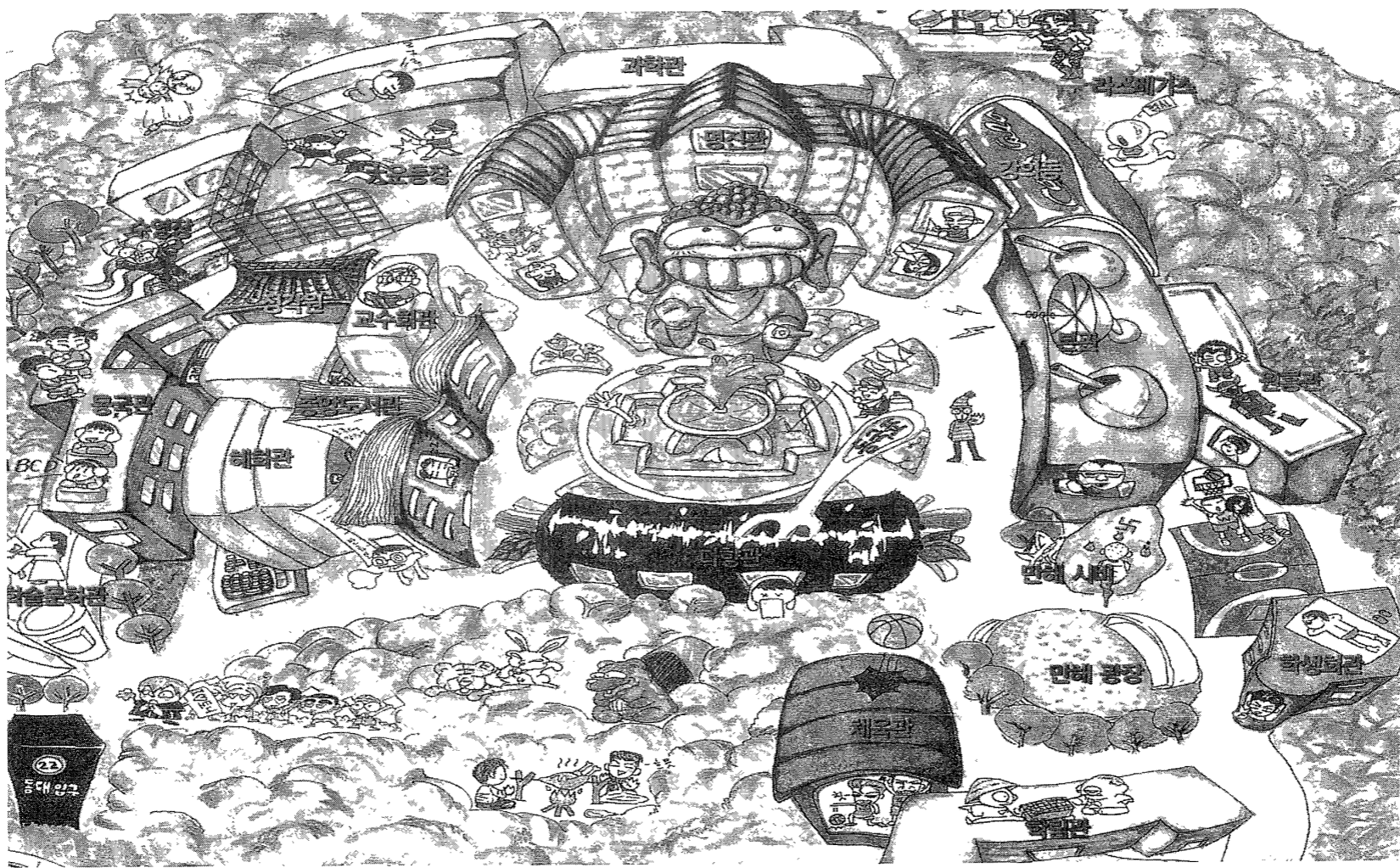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The future together

다시한번  
'절대공간'을 생각한다



동약의 인구가 많아졌다. 남산 제모습 찾기의 '고도제한'으로 건물의 증축은 어렵지만, 계속되는 증과·증원으로 학교 어디거나 사람이 북적거린다. 동약의 공간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동약공간의 현실과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총면적 4만3천7백여평에 1만6천3백여명 생활, 절대공간 부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그림으로 본 서울 캠퍼스

그림=만화열

## 1만6천여명 생활 1인당 2.6평 꼴

동약의 인구가 많아졌다. 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천 동국인'이던 것이 90년대 중반부터는 '1만동국인' 그리고 지금 97년에는 '1만2천 동국인'이 되어버렸다. 학교 어디거나 사람이 북적대고 시간제 등록생, 편입생, 정원의 특례입학생 등 수와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동약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

우선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 1백79명, 부교수 40명, 조교수 38명, 전임강사 48명, 명예교수 32명, 외국인 초빙교수 12명, 연구원 30명, 조교 2백23명으로 총 6백3명이다.

△학생현황은 편제정원 1만 6백60명, 재학생은 1만9백21명이다. 또한 편입생 3백 82명, 시간제 등록생 72명, 특례입학생 1백39명, 학사편입생 96명으로 총 1만1천 6백10명이고, △대학원생은 총정원 1천2백73명, 일반대학원재학생 1천1백54명, 특수대학원은 총정원 1천4백35명, 재학생 1천 1백94명이다. △상업의 직업매장 직원 60명 임대매장 직원 30명이 있으며 △전 자체산원의 총학생수도 1천7백여명이나 된다.

이 모두를 합하면 총 1만6천3백25명. 흔히 알고 있던 '1만2천 동국인'보다 4천 여명이 많은 수이다.

동약의 면적은 14만4천3백18평방미터, 약 4만3천평의 공간에 1만 6천여명이 아웅다웅 물려사는 것. 그러면 1인당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은 8.8제곱평방미터 즉 2.6평 남짓 된다.

# 날이갈수록 동약이 좁아지고 있다

### 한정된 공간 불구 계속되는 증과·증원이 원인 학교주변 부지매입 등 동국발전 위한 시급한대책 필요

동약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웃기를 스치며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들으며 업무를 본다. '웃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동국인 모두가 전생애 업을 많이 쌓은 닻(?)도 있었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단번에 '절대공간 부족'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캠퍼스의 전체총면적은 14만4천3백 18평방미터(약 4만3천7백평). 그러나 그속에 생활하는 총인원은 1만6천3백여명으로 1인당 주어진 면적은 8.8평방미터(약 2.6평)로 한사람이 누우면 딱맞는 정도이다. 이렇게 과포화상태인 동약의 현실때문에 매년 좁은 공간에 대해 불평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심지어 도서관에서는 새로 구입한 도서를 전시할 공간이 없어 새 책이 서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남산 제모습찾기'의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을 더 올리고 싶어도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제3캠퍼스건

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산에 10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200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대, 이과대, 생자대를 이전해 서울캠퍼스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을 특성화시켜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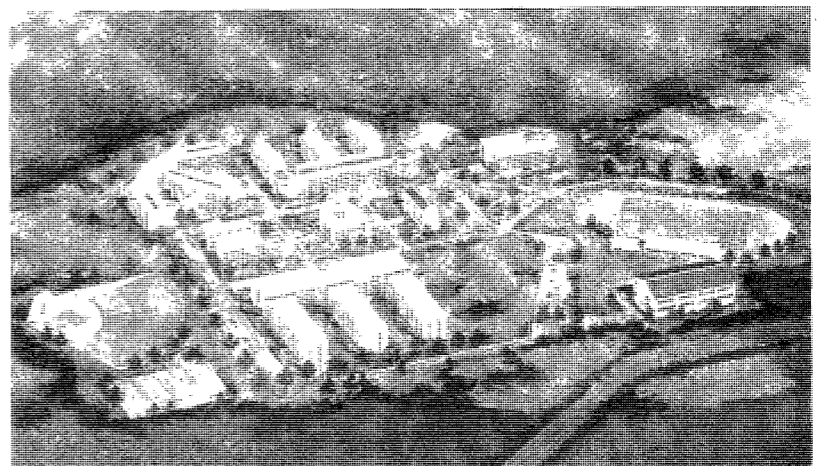
물론 제3캠퍼스가 완공되면 공간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입생을 받고 증과, 증원을 하는데 있다. 또한 '열린대학'의 취지로 지역주민에게 대학을 개방하는 것이 사회환원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간문제에는 협소함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캠퍼스 이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토지의 구입에서 완공까지 약 1천 여일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기금으로 약정된 금액은 3백 30억 원. 약정액이 모두 모금된다 하더라도 연

구기금과 장학기금을 제외한 순수 발전기금은 2백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자금을 산학협동, 발전기금모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지만 8백여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개교 80주년 기념관이 기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공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제3캠퍼스 건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그 기간동안 대안없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서울캠퍼스 발전의 지체현상'이다. 물론 공대농구장부지에 종합정보센터 기공식을 했고 과학관 뒤의 식당건립계획도 갖고 있지만 절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것은 아니다.

제3캠퍼스 건립이라는 우선 과제가 있고, 게다가 '남산제모습찾기'까지 걸림돌로 작용해 절대공간확보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후문 옆 제법소유의 병원은 가정집을 비롯한 상가까지 매입해 증축에 여념이 없고 체육관 뒤의 넓은 기



사진은 제 3캠퍼스 조감도

와집은 5층높이의 변듯한 오피스텔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산제모습찾기'의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을 더 올릴 수 없다면 학교주변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1세기 교육개방을 앞두고 서울캠퍼스는 세계적인 동양학의 본산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문제 해

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영 기자

## 취업특강 및 실전 모의면접

최근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이 필기시험보다 면접을 통한 인물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따라 입사신청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면접을 사전 본교 취업예비생들에게 접해보기 위한 모의면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전원참석하기 바람.

1. 일 시 : 1997년 9월 25일(목) 10:30-17:30
2. 장 소 : 본교 중앙당
3. 특강강사 : 매경 취업뉴스, 장재성교장
4. 모의면접관 : 현대, 삼성등 대기업 재직동문(임원급) 10여명 초빙
5. 행사 세부시간계획

시간	행사내용
오전 10:30-12:00	취업특강(매경 장재성교장)
13:00-14:50	집단면접 (대기업재직동문 5명초빙)
15:00-15:30	강평(면접관)
15:40-16:40	집단토론식 면접 (대기업재직동문 5명초빙)
16:50-17:10	강평(면접관)

학생처장

## '98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공고

•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전공)별 약간명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문윤리, 교육, 한문, 국문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조경	불교, 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 미술사, 철, 국문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자연과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산업공, 식품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체육, 미술	연극영화
의학계	한의학, 의학	한의학, 의학
협동과정	멀티미디어 전공, 아시아지역전공	

- 본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에 수료 가능함

- 지원자격  
1. 석사학위과정: 대학전학년 평점평균 4.5만점기준 3.0이상인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전학기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 지원서류: 1997.9.23(화)~10.2(목)
- 지원서 접수: 1997.10.1(수)~10.2(목)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접수함.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12:00까지)
- 전형일시: 1997.10.10(금) 10:00

- 석사과정 동일계 출신이 아닌지도 응시할 수 있음(한의, 의학과는 제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260-30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7군장학생(후반기)모집

1. 모집인원: 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  
1학년(75.1.1~81.1.1출생자)  
2학년(74.1.1~80.1.1출생자)  
3학년(73.1.1~79.1.1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7.10.1~10.22  
- 장소: 학군단  
-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대학성적 증명서 1부  
부부연장 지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2부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 납세증명서 1부  
사진(4x5cm 탈모 상반신) 7매
4. 선발 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 '98.2.10
6. 특전  
- 학군단 지원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및 수학교보비 혜택  
- 국내외 민간 대학원 석·박사위탁 기회 부여(장기)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복무자)  
-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채용
7. 문의처: 학군단(260-3537·3538)

제112학생군사교육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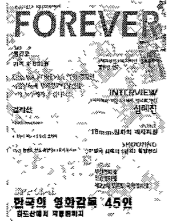
## '98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00명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졸업예정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7.10.1~10.31  
- 장소: 학군단  
-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 1부  
대입수능성적 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졸업 예정자 4학년 1학기 까지)  
주민등록 등본/호적등본 각 1부  
(부도 사망시 제적등본 추가 1부)  
컬라사진(4x5cm) 6매
4. 선발 절차  
- 서류전형(대입수능성적40% 대학전학년 성적30% 체력검정20% 면접10%)
5. 합격자 발표: '98.3.10
6. 특전  
- 군복무 기간: 3년  
- 본인 희망시 부부연장 및 장기복무지원 가능  
- 장기 지원시 군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 취학 가능  
- 전역후 일반기업체 취업알선
7. 문의처: 학군단(260-3537·3538)

제112학생군사교육단장

### 책소개

#### 씨네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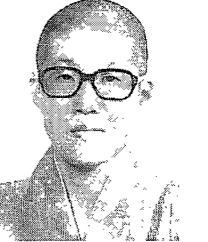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화란 파랑새와 다름이 아니다" 한국영화 중심의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영화라는 파랑새를 독자에게 안겨 줄 것을 약속하며 지난 9월 1일 장간했다. 본교 연극영화학부의 정재형, 유지나 교수가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출판 신과 바다, 정가 4,800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고 올바른 인간 관계는 바람직한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인간 발전 및 교육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가 있고, 그것을 추구해 보면 나름대로 훌륭한 교육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이다. 한국의 전통 양육 및 교육 역시 우리의 환경과 문화·가치관을 바탕으로 발달되어 왔고 그 속에는 한국인의 지혜가 스며 있다. 그러나 산업 발달에 따른 핵가족화와 전통 문화에 따른 이해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도덕

성은 문제화 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자신이 항상 첫번째이어야 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인명 경시 풍조의 많은 해독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안락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교육은 한국인답게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한국 사회 및 문화 그리고 전통에 맞는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전통 교육에 대한 재음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 및 교육 그리고 한

국인의 정서를 이끌어 온 여러 사상 중 특히 불교 사상은 삼국 시대 불교의 전래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의 삶 속에 잔잔히 녹아 있다. 가장 근본적인 불교 사상인 연기법(緣起法)은 그 교리의 좀더 용이한 접근을 위해 '남을 해치면 자기도 해를 입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전개되었고,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소유하고 있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자비·보살행은 이타 정신으로 표현되었으며,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생명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과 더불어, 태아부터 인간으로 인정하는 태교 등은 불교적 윤리 사상의 소산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삶을

인도하는 거름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불교의 교육사상과 정신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다시 살아 빛난다면, 사회는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가는 아이들은 많지만 어린아이다운 순수함과 동심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남보다 먼저 한가지 지식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애 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타인을 생각하고 예절을 익히며 정통을 사랑하는, 곧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건강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장(場)이 있을 것이다.



권은주 불교문화대 불교 아동학과 교수

### 자비의 교육 달하나 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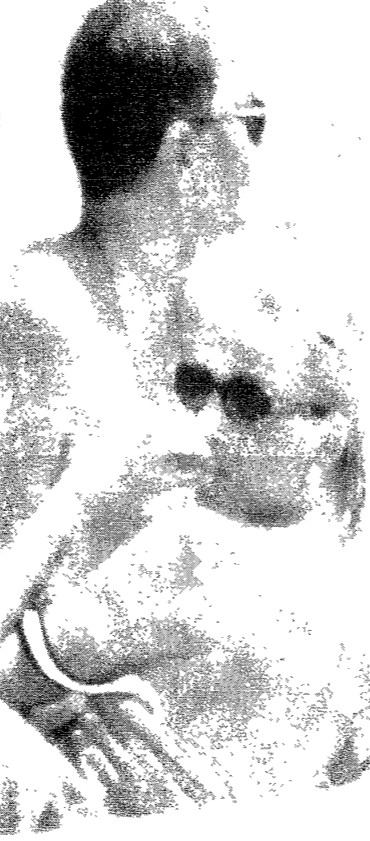
### 다이애나의 죽음에 부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다이애나비가 죽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녀의 죽음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타고 전해져 오는 서양 사람들이 수선하는 모습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가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바람난 이혼녀가 사고사로 죽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언론이 서양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심층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한날 이혼녀의 생활과 행동이 저쪽에서는 왜 그토록 화제거리였는지, 또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기사는 거의 보지 못했다. 서양에서는 대중 스타 외에도 전통적인 권위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되는 스타집단이 또 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로얄 패밀리이다. 민주주의와 대중문화가 발달한 사회에 살면서도 대중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들에 대한 동경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양의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대한 저항때문이라는 모르겠으나, 파파라치가 그토록 집요하게 다이애나비를 추적했던 배경에는 대중들의 귀족·성(聖)지향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애나비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대중·속(俗)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

### 서양, 로얄패밀리의 이상 ... 동양, 한날 이혼녀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나든 휴머니스트

히 소위된 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은 가히 헌신적이었다. 지뢰제거를 추진하기 위해 보스니아의 현장을 방문한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이유 조 질문에 대해서 "세계의 문제에 빛을 비추고 싶을 뿐"이라고 답하면서 어이없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귀족과 대중의 가교역을 자임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영국여왕이 아닌 '마음의 여왕'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꿈, 그것을 끝이 사랑·평화·평등·정의 그 어느 말로도 고쳐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점에 있어 그녀는 행복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만났던 다수의 남성들 중에서 과연 한사람이라도 자연인 다이애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그들도 그녀의 지위와 신분이 갖는 허상을 좇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역시 파파라치에 의해 제공되는 귀족들의 소식에 목달라 하던 대중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며, 그녀는 이번에도 스스로 대중들에게 다가갔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성(性)·성차(性差)를 넘어서서,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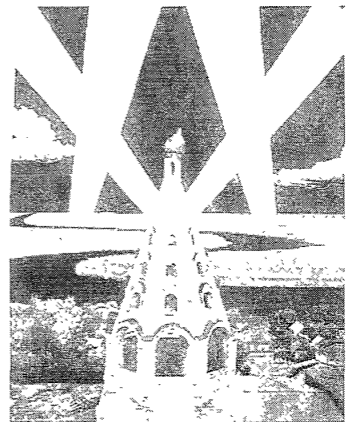


파파라치가 찍은 다이애나와 도니 알파에드의 밀어붙임

정재섭 역사교육과 교수·본사 주간

### 지구의 작은 틈 열어주자 사이버 공간·독특한 발상전환 눈길

"예술은 하는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이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장르가 혼합된 예술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영화배우 문성근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97 제 2회 광주 비엔날레'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미술 분야를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구의 여백'이라는 주제는 산업화, 현대화, 서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슬한 모순과 고통을 겪어온 지구에게 얼마간의 틈(예술에 대한 여백)을 제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여백을 만들려는 노력은 항상 중앙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바라는 현대인과는 반대로 중심에 서기를 거부하는 '필질과 정신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구의 여백'은 속도, 공간, 혼성, 권력, 생성 등 5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졌다. 추상적인 단어들이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으나 비엔날레는 이 다섯 단어의 공통점을 '지구'를 근대화의 과정으로 이끈 진보의 열광이자 동시에 심각한 위기로 돌아오는 주요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이 단위들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가상 공간에서 합성된 인간의 모습, 천장에 매달려 있는 참치들의 모형, 은하수처럼 보이는 오줌 줄기의 모양을 찍은 사진,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다양한 기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공모상을 받은 블라노프의 러시아 20세기(위)와 호평을 받고 있는 폴 매카시의 '스피게티 맨'(오른쪽)



법과 창조적인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광주를 찾은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출품된 작품 중 사이버 공간에서 조합된 작품들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많은 눈길을 끌었다. 소주제별로 구분되어 한 번에 5개의 전시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연결된 전시장은 여러 명의 도우미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으며 관객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도 도우미들의 친절한 작품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책자도 많이 사서 보고, 질문도 많이 해요" 한 도우미가 관람객의 적극적인 자제가 몹시 보기 좋았다고 전하며 "모든 작품을 다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감상하는 것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작품관람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에 따라 준비되는 각종 연극, 공연, 특별전 등 이벤트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며 공화, 터미널, 사창동 유적지, 나 5·18 망월동 성지 등에도 무료 셔틀 버스를 연계해 광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의 편의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5·18의 한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는 이제 비엔날레로 인해 새로운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 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 등과 같은 국제적 문화 축제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8회가 열리는 99년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 따뜻한 느낌으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장 최근에 편지 써본 기억 있으세요? 진솔함이 담겨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은요? 베페, 핸드폰, 씨티폰에 PCS까지, 첨단통신채널로 사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문득 조금씩 정성을 기울였던 방법들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그럴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는 따뜻한 통신수단, 커피 한잔으로 다가주세요 커피 한잔이 앞에 있으면 궁금했던 얘기, 막혔던 얘기가 술술 풀리고 커피 향기와 더불어 대화의 향기로워 진답니다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건 물론이구요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향기로운 다리 - 따뜻한 커피 한잔입니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Hitel:GO MAXIM

영상매체비평

-TV드라마편 '파랑새는 있다'

'삶이 꾸밈이 없듯 드라마 역시 꾸밈이 없다'

현란한 카메라 기법과 화려한 볼거리, 이중 삼중의 애정관계와 만화같은 사랑이 야기로 이루어진 트렌드 드라마의 붐을 겪고 KBS의 '첫사랑'이 시청률에 있어서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간 '한지붕 세가족', '육이 이모', '서울의 달'로 번두리 삶의 애환을 해학과 웃음으로 엮어내었던 작가 김운경의 '파랑새는 있다'가 바톤을 전해받았다. KBS의 주말드라마 '파랑새는 있다'는 현재 꾸밈이 없는 서민들의 소박함으로 인해 오히려 돋보이는 드라마라는 평을 받고 있다. 상류층의 화려한 결혼양가나 로맨틱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 드라마

는 투박하고 초라한 인생유전들이 얽히고 설킨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구차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이들의 삶이 우리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삶의 건강성과 진솔함이 드라마에 깃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외된 삶을 그렸다고 해서 땅이 꺼질 듯 한숨만 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재미를 나누며 큰소리로 웃기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허풍을 떨기도 하며, 안주 없는 술상에 두부 감자를 내놓는 여유로운 해학이 보여진다. 작은 소망 하나씩을 품고 있기에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삶에 충실하다.

이렇듯 결코 화려하지 않은 삶들이기에 드라마 역시 기교를 별로 쓰지 않는다. 현란한 카메라 워크도 없고, 특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한 배경음악도 없다. 과장된 갈등구조도 필연성을 가장한 우연성에 기대어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해 기를 쓰지 않는다. 그들의 삶에 꾸밈이 없듯이 드라마 역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 애쓴다. 그래서인지 다른 드라마에 비해 그렇게 유행나지도 튀지도 않는다. 자극적인 볼거리와 한탕주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나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만화 같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드라마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눈에는 이 드라마가 너무 단 순하고 밋밋할 수 있어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파랑새는 있다'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볼직하다. 시청자들에게 심부름과 같은 내용보다 열골스타들을 내세워 만드는 드라마에 비해 당당하고 끈적끈적한 인간애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사실 방송에서 드라마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방송사나 드라마에 대한 과도한 시청률경쟁이 이어지고, 양적으로도 과도한 드라마들이 줄속으로 급조되고 있다. 특히 SBS의 '모텔', '스타', MBC의 '육망', 또한 빛을 못보는 드라마는 조기종영

하고, 반짝하는 드라마는 옛가락 높이듯 방송을 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방송가의 현실이며 방송행태이다. 이러한 때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 주말드라마로 뛰어드는 '파랑새는 있다'에 시청자로서 우위의 점수를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와 삶의 희망에 대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파랑새에 대해 제시하는 드라마로서 기대하고 살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의 복고풍 드라마를 뛰어 넘어 철학과 해학이 있는 드라마로 끝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지희 서울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요리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한가위

사례 1

### 동문회형

"엄마, 나갔다 올게요"  
어젯밤 서울에서 내려온 수현은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다 오후 6시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통밖에 이불을 박치고 일어났다. 가법계 샤워를 하고 무스를 발라 머리에 빗질도 하고, 어머니가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을

위해 마련해둔 새옷을 입고 문밖을 나서는 것이다.  
"어딜가려고? 집에서 쉬지 않고?"  
안타깝게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길에 수현의 한마디.  
"친구들이 좀 보재요. 금방 올게요. 참 용돈 좀 주세요"  
자갑에 뱃뺨한 수표 한 장을 넣은 수현은 택시를 잡아타고 동창들과 자주 다녔던 예 산호프로 향했다.  
"잘 지냈어? 그대 학교는 어때? 군대는 언제가?"  
동창들은 어디서 마셨는지 벌써 얼굴이

붉어져 있다.  
수현과 친구들은 실 이후로 지난 반년간의 이야기들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오백짜리 팩주잔은 소주잔으로, 양주잔으로 변해 갔고 술자리도 벌써 서너군데를 지나고 있었다.  
"어렸? 몇시야? 야, 벌써 다섯시다. 집에 가야겠는데"  
친구들이 수현의 손목에 시계를 돌려보며 말했다.  
"어, 돈 다 떨어졌네. 그대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수현은 주머니를 뒤져 2천원을 찾아내고

맥시를 탔다.  
"학생, 술 많이 마셨구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나 보네. 그대두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해서 조금씩 마시고 일찍일찍 집에 들어가자"  
술기운 때문에 운전기사 아저씨의 느릿한 말투가 망가진 라디오 소리처럼 들려왔다. 수현은 눈을 감았다.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난다. 별반 다를바가 없다. 부모님께 용돈타고 친구들과 술마신게 그가 3박 4일 연휴동안 한 일의 전부다. 그 3박 4일의 연휴에 이제 1박이 끝난 것이다. 최진 기자

사례 2

### 모니터형

추석 연휴 둘째날, 오늘도 잔뜩 낀 눈썹 때문에 눈동자가 보일 듯 말 듯 한 김모군은 허리가 아파 도저히 잠을 청하지 못해 일어나 슬렁 슬렁 침대 밖으로 기어 나온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계획한다.

"오늘은 문화방송을 먼저 보나? 서울방송을 먼저 보나?"  
자못 의미 심장한 표정의 그는 어제 신문을 펼쳐 든다.  
"블리프 행어, 다이 하드 쓰리, 리벨 웨폰 투, 미스터 맘마, 그리고 우주에서 온 별뿔왕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방영하는 영화란 재탕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김모군은 의지의 한국인! 기억이 가물가물한 '영구와 땡칠이'를 보기로 결정하고 텔레비전을 켜다.

허기가 진 김모군, 스네면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영구가 심형래일까, 이창훈일까?'를 고심하면서...  
하지만 영구는 심형래도 이창훈도 아닌 뉴스캐스터였다. 방영 시간을 잘못 안 김모군은 채널을 돌리려 하지만 이윽고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시종일관 뉴스 화면에는 고향에서 추석을 지내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김모군은 서글퍼진다. 더불어 그의 뺨속도 슬퍼져(?) 용동을 친다.

"예!! 어제 큰집에 같이 내려갈 걸 그랬나? 말자, 말숙이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말이야."  
갑자기 전화 벨이 울린다. 시골에 내려간 김모군의 어머니가 그가 걱정돼 전화를 한 것이다.  
"모군이냐? 그래, 밥은 먹었고?"  
우리의 김모군! 훌쩍이며 대답한다.  
"엄마! 나 내년 추석에는 꼭 같이 내려갈게. 그리고 올 때 부엌에 많이 싸 와!"  
경

사례 3

### 떠돌이형

차표, 코펠, 버너, 식량 그리고 약간의 돈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왔어. 어디로? 지리산으로!  
친구 3명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모두 지리

산에 헌납하기로 철썩같이 약속을 하고 집에서 간신히 허락을 얻어서 맑아, 우리들은 외쳤다. "젊은 날의 자유를 찾아 우린 떠난다" 이 젊은 나이에 집에서 조카들이나 보며 자넬 순 없지 않겠어?  
서울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보니 열차 시간이 다 됐더라구. 전화를 했더니 글썽 "집에서 허락을 안해준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핑계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리구.  
"아구! 외리없는 놈들, 그대 젊은 날을 방버려서 써야라 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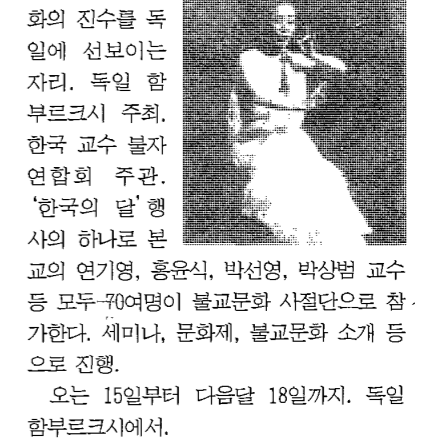
물론 조금 막막해졌지만 오기로라도 지리산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혼자서 기차를 탔어. 기분이 좀 상했지. 고향가는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자니 왠지 조금 우울하더라구. 그대두 뭐 먹기 싫은 송편 속에서 허우적 거리진 않아도 되니까. 위안이 되더라구.  
하얀 난 지리산 산장에 죽을 힘을 다해 울랐고 결국 산장의 밥을 맛있게 그렇게 좋은 가을 밤이 온통 외로운 투상인거야. 한가위 아침을 지리산 산장에서 빵 몇조각과 함께 지내다나. 갑자기 눈물이 울려 쏟아지는

더라구.  
"아 송편 먹고 싶다"  
그렇게 씹어하던 송편이 먹고 싶더라구. 그래서? 그대서는 무슨 그대서야. 몇시간을 서서 줄면서 기차를 타고 집에 왔지. 별수 없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개구장이 조카놈이 '삼촌이다' 하고 뛰어오는데, 그제야 알았지 뭐. 산에서 새소리에 잠을 깨는 때보다 조카놈 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뜰 때가 더 행복하는 걸. 은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서른 사람들  
본교 한의예과 대학 극단 '애오라지'의 제 15회 정기공연.  
장진 원작으로 서른 여선생의 집에 서른 독목이 들어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코믹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촌철살인적 대사가 인상적.  
이계석 연출. 10. 11월 2시, 6시 원희관 소극장 II에서.

학교 밖에서  
한국 불교문화 예술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독일에 선보이는 자리. 독일 함부르크시 주최. 한국 교수 불자 연합회 주관. '한국의 달' 행사 하나로 본교의 연기영, 홍윤식, 박성영, 박상범 교수 등 모두 70여명이 불교문화 사절단으로 참가한다. 세미나, 문화제, 불교문화 소개 등으로 진행.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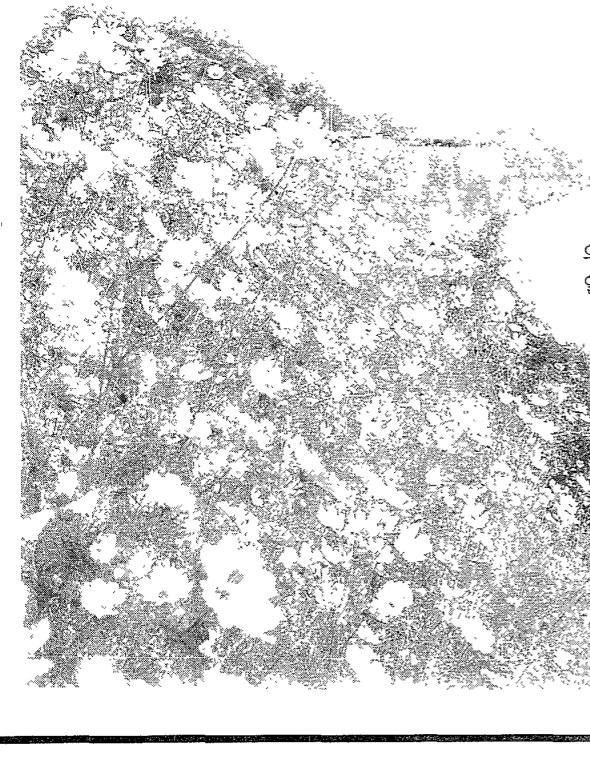
제1회 서울 쿼어 영화제  
한국의 젊은 연극과 외국의 젊은 연극이 한자리에 만나 세계 연극의 흐름과 미래를 제시.  
'진통과 실패-21세기의 연극은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본교를 포함한 국내 6개 대학극단과 9개국 12개 연극 학교가 참여한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비경쟁 축제마당으로 다양한 실험 연극을 보여준다. 18일까지, 본교 예술극장과 종로 연극장에서. (743-4255, 741-2972)

세계대학 연극 축제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게이 및 성적 소수 집단 관련 국제 영화제.  
'차이와 시선', '부정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80여편의 장단편 영화 상영을 통해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 소수집단들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취지. 대안적 영화의 추세 가운데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흐름의 뉴 쿼어시네마의 영향을 영화관계에게 알린다.  
19일부터 25일까지, 포스트 창무극장, 흥대야 푸른굴 양식장. (766-5626)

유흥준 교수 초청 강연회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의 출판 기념 행사. '문화유산을 보는 눈-공예편'이라는 제목으로 저자인 유흥준 교수의 강연회가 열린다. 예술미당 술, 책터 하늘북 공동 주최.  
10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053-427-8141)

# "한가위 단순한 연휴 아니다"

## 조상에게 감사하는 나눔의 시간돼야



실날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8일 일으로 다가왔다. 이제 지방학생들은 고향으로 가는 귀성 차표의 예매를 확인하고 서울이 고향인 학생들은 긴 연휴기간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과거 우리네 한가

위 풍경이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송편을 빚고 갖가지 음식과 오색과 일로 정성스레 차를 올리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씨름을 해서 황소의 일자를 정하기도 하고 젊은 아낙들은 그네를 타거나 강강술래를 하며 흥겹게 지도록 답소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고향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리곤 한다.  
"달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마다 달집을 짓기도 했다. 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마다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에서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말아"  
강정구(사회학)교수가 이야기하는 한가위의 모습은 귀성길 지나던 자동차 행렬에 지친 현대인에게 한가닥 청량제 같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은 그런

풍경들을 그야말로 추억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백화점에서 사온 송편을 먹고, TV브라운관 앞에서 무료함을 달래거나 아무거리낌 없이 여행을 떠내버리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한가위는 우리에게 연휴이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간"이라고 신혜원(가정교육)교수는 본래 한가위의 의미를 정의한다. 인스턴트와 일회용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뿌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우려의 말과 함께 내려진 한가위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잊었던 '조상'과 '감사'라는 단어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  
"오곡백과가 여물고 채소마져 풍성한

메아리  
내일의 유물  
▲허물어 내리던 반월성의 담과 계림의 처마, 죽어서도 나라의 안전을 염려해 바다에 돌힌 문무대왕릉, 수많은 석불과 석탑으로 산 전체가 박물관인 남산,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어 환의 국지를 보여주는 불국사, 거대한 빗가슴처럼 군데군데 솟아있던 봉황대, 천년전만해도 신라는 문화의 구심점이자 발생지였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왕관중심과 불교진흥정책을 펼쳐

강국으로써의 명성을 떨쳐나갔다. 국가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로서 이름을 날렸다. 중국의 그것과도 비교할만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정부는 2천년을 앞두고 현재의 유물·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캡슐을 만드는가하면 여의도 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을 보호하고 후세들에게 물려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주자는 의도이다. 자연과 문화는 우리세대뿐만 아닌 다음세대들도 볼 권리가 있고, 우리들은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  
▲천년전 삼국통일을 실현시킨 신라도 우리세대를 위해서 여러정책을 펼치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왕은 힘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옛선조의 문화

를 잘 보존하고 있나? 삼국을 통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문화만큼은 지켜야 하는데도 옛신라는 지방자치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유원지내 경마장 건설, 유흥시설 설치의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있다. 신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만무하다. 시민의 안전치이자 역사공원으로 알려진 황성공원을 종합체육관을 건설한다고 한다. 그시절 신라왕들의 사냥터이자 6부총장들의 회의가 있었던 역사적인

공원에서 말이다.  
▲경주를 가리켜 산문화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천년전 향유했던 문화를 매개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그 문화를 읽어낸다. 비록 통일신라가 망했지만 말이다. 진정한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자연과 빛이아 늘었던 옛신라의 모습을 되새겨 봐야겠다. 조선인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한가위**

△엄청난 귀경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군.  
△서울이 집인 사람들은 좋겠군.  
△보름달을 보며 무엇을 빌어볼까?  
△한: 많은 가: 계부 위: 독합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전쟁은 임진왜란, 세계 최고의 전쟁은 세계대전, 한국의 최대 전쟁은 귀성전쟁.  
△오랫만에 보게될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산군민 여러분 기다리세요~  
△나 5천원에 집에 간다 와우!!!  
△한가위는 왕가위와 씨다른 동생!  
△한가위와 가위손은 같은 생씨인가?  
△나 오늘 한가해~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추석은 15일이라요.  
△강강술래잡거나 할까?  
△화환한 고스름 한판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한가위는 9월인데 두가위 세가위는 언제?  
△한가위에 이희창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질까  
△가위를 세러 간다는 몇 개나 셀수 있을까?  
△우리 모두 고향이 있어도 못가는 분을 생각합시다. 전·노를 빼고.  
△추석날 가위 놀리면 엄청났었을까?  
△한가위에 특식이 나온대요. 그래도 보초는 서야 합니다.  
△이번 한가위는 경제적으로 사상최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마음만은 늘 편안하기를  
△한가위를 맞이하여 못된 정치하는 놈들 한(큰)가위로 싸둑 자르자, 어디들?  
△한 '가위' 하면 한 춤하는 유순준 △이번엔 꼭 집어가지. X세대! 어른 공경하고 성모도 가자!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한가위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유순준 가위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꿈은 가위에 놀린 꿈  
△ '한' 민족의 '가' 식없는 '위' 상을 이번 한해에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학부제 문제점 해결 대학구성원 관심 필요**

“무슨 과에 다니십니까?” “저희는 과가 아니라 학부인데요.” 요즘 난 이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다. 다름 아니라 내가 학부생이기 때문. 난 96년 동국대에 입학하면서 어쩌보면 시험제도였던 학부제라는 제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 그저 학부제란 이것저것 꼭 넓게 공부해보다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택하면 되는 좋은 제도인 줄 알았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문제점들은 많아졌다.  
보장되지 못한 전공선택권, 전공 수강인원이 늘어나 한 강의실에 2백명이 넘게 들어가고 그나마 강사들이 정교수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열악한 교육환경,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은 없어지고 대학의 집단주의문화는 사라져갔다. 올바로 정착된다면 보다 폭넓고 실용적인 학문을 제시할 수 있는 학부제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망쳐져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1년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결실을 맺은 걸까?  
97학번들은 전공선택이나 과점원상에서는 조금 나은 조건의 학부생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점들은 많이 남아 있다. 취직 잘 되는 전공을 선호하는 학생들로 인해 인기전공에는 지원자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전공인원도 늘어나지만 그만큼의 교육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똑같은 크기의 강의실과 똑같은 수의 교수님에게서 원래 정원의 1백50%가 늘어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풍토로 인해 학부생들은 소속감도 잃어버리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  
이런 학부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기있는 전공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하고 학교에서는 학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공중의 실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수님을 증원하며 교육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학 내의 올바른 대중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일소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집단주의 문화를 가꿔나가야 한다. 학부제의 패배는 비단 학부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내 전 구성원들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동막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학부제가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뿌리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취지불구 찬반논쟁**

지난 7월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파놓고 있다. 검열로 인해 문화 전반에 걸친 탄압과 위축,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청소년층의 반발, 곳곳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찬반논쟁들이 그렇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는 어느 시대 체제, 계층에서나 존재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청소년도 사회의 한 계층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문화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규제한다면 더욱더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문화로 발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는 대안없는 규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그나마 청소년들이 출입하던 가요방, 만화방, 당구장 등의 출입을 규제하고 있어 결국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점을 들어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말살법이라고 한다.  
셋째는 이 법을 만든 기성세대에게 있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거울로서 청소년의 행위는 결국 기성세대의 모방이다.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는한 청소년들도 변하기가 힘들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큰 효과를 볼런지는 의문이다. 자칫 청소년들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광재(인문과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처·학생회 변화 학생복지 고민해야**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가을에는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어야겠다.  
교수회보고서(책자) 가운데 이런내용이 있다. '현재 기능의 축소·약화가 필요한 부서'

를 묻는 설문조사항목에서 학생과를 지적했다. 그럼 학생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 학생의 의견, 민원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행정, 복지, 지원행정, 사회봉사행정, 학사행정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처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학생처란 명칭을 학생지원처, 학생복지처, 또는 복지지원처로 바꾸어서 부서개편도 실시해야 한다. 취업·장학과 학생과를 통합한 학생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생활상담실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학생복지센터는 등록 및 입학안내, 학생생활지원(하숙방 등), 병사, 재중명서비스, 강의시간표, 수강신청 등 각부서에 호트려져 있는 행정업무를 전담화해서 터치스크린방식의 컴퓨터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 학생이 등록을 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갔는데 "교학과(해당대학)에 가서 납부고지서 받아 가지고 하라"고 교학과에서는 "학과 조교한테 가라"고 한다면 학생은 더위에 왔다갔다 짜증만 날것이다.  
그러나 복지센터에서는 학생생활의 모든 것과 민원, 제서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치 민원업무관처럼 시청까지 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도 민원창구에 해당하는 '안내실'이 있고 그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하여 용모단정된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서나 관공서에도 민원실이 있듯이 대학에도 복지센터, 민원실이 필요하다. 대학에는 대학생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취업관계로 각 기업체에서 인재채용으로 취업과를 방문한다. 막상 찾들러고 하면 막막하다. 학생들한테 물어도 잘 모르고... 건물이 한두개도 아니고 대학도 이런 안주할 수 없다. 홍보돼야 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센터운영은 현재의 건물형태로는 부적합하다. 지금의 학생처 각 사무실은 작은 실험실을 개조한 것이다. 기대하건대 경주컴퍼스 본관건물 설계는 이런점을 고려해야 신개념의 행정서비스가 용이할 것 같다. 따라서 학생회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 역할의 변모, 사고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방만한 자치기구, 단과대학별로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을 과감히 탈피하고 공간을 사유개념에서 공유개념으로 즉, 공동의 선을 찾아야 학생회 일원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  
황래열(경주총 학생과장)

**동문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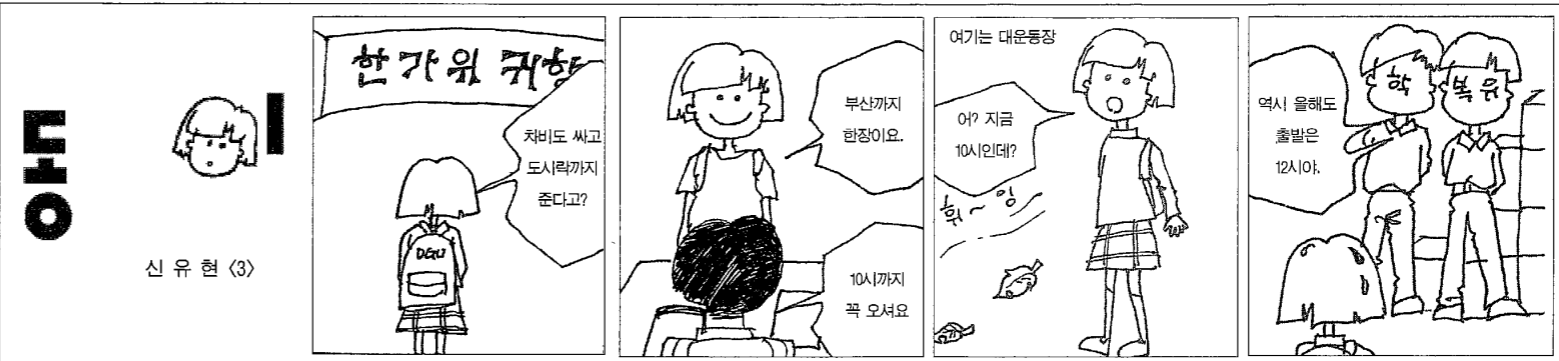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반 준임 96졸·이주관망 해외여행부

얼마전 태어난지 10개월이 된 내 딸아이가 혼자 힘으로 벌떡 일어났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앞뒤로 흔들며 밝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무척 사랑스러웠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이쁜 옷 입혀주고, 맛있는 것 먹여주고 또...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가지가 불현듯 생각났다. 아름다운 세상! 이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세상이 이 아이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이 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회생활 1년째인 회사원이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잊어가며 살고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88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시대는 치열했고 독재와 억압에 항거하는 수 많은 사람들과 대학생활을 함께 했다. 진실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아픈 얼굴들 서로 바라보며 빙글레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절을 96년초반까지 보냈다. 그리고 뒤에는 사회생활. 사회는 내 기대만큼 쉽지 않았고 어렵기만한 하루하루는 대학시절의 치열함을 조금씩 잊게 했다. 사회에서도 참새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고자 했던 나로서는 부끄러운 생활이었다.  
그러다가 늦은밤 기특한 마음에 딸아이를 품어안고 있는 나에게 스치듯 지나간 이 생각들. 딸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펜시라 딸아이에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아빠의 젊은 시절을 물을 때 아무 대답을 못했을 뻔 한 나를 구해준 딸아이가 고맙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찾아버릴 뻔한 내 자신을 구한게 다행스러웠다. 내가 보아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학생시절에 농촌활동을 떠난 여학생들에서 팔방을 돌리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통일을 외치던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모습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 일진대. 한순간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서 무기력하게 우왕좌왕하던 내 자신.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겠다.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벗들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딸아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날 밤의 이야기를 즐겁게 해줘야겠다.

이피란(경상대 경상학부)

신유현(3)



**동막광장**

**다량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후랑크아채볶음(1200)(중식) 모듬류림밥(1200)(석식)
화	키레라이스(1200) 두부간통기백반(1200)
수	제육김치볶음(1300) 콩나물밥(1200)
목	탕수육백반(1500) 순대아채볶음(1300)
금	소고기볶음밥(1300)

(단위: 원)

**동국관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2800)미디어면(3000) 소고기버섯찌개(1300)돈까스(1300)
화	따로국밥(3000)영양죽(3000) 닭조림(1500)해물볶음(1200)
수	소고기볶음(3000)복어양념구이(3000) 소골국(1300)회덮밥(1300)
목	육개장(3000)간짜장(2800) 돈육찌개(1200)오징어볶음(1300)
금	순살국수(2800)꽃고추장(3000) 불고기비빔밥(1500)하이라이스(1200)

(단위: 원)

**목격담**

**축하합니다**  
△재우의 복학을 축하한다. -94 재우  
△우리 합창단 최고로 귀여운 CC의 100일을 축하 합니다.  
△태민 천생연분과 드디어 랑데뷰  
△영산오빠 생신축하 드려요!  
-97 경상학부  
△9월 5일 허서기의 개강을 축하함 -나  
△해경이형 결혼을 축하해요! -96.ISRI  
일동  
△영근.형진 반대표 된 것 축하해 열심히 해. -포맽이들  
△주별야! 너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조나단  
△군대간 늦동이 박준석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경성대일동  
△훈희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제나 열심히 했지만 더욱 힘차게 잘 해나가자. 너를 좋아하는 비바살의 동기들

**수고하셨습니다**  
△F.I.A.D 광고제 하느라 정말로 수고

많았다. -이쁜누나  
△강원이형 제대 무지 축하!!!  
-회계과 소  
△수현아 집에 잘 잤다 와라 임! -진

**알립니다**  
△11월 1시 목요일에 불상에서 문경구름이 공연을 합니다. 미니마니 보러 오세요.  
△대광남교! 우리 동문회 하자  
-술고프 47기

**그리고...**  
△우리 해피투게더 보러 간다.  
-97 불미니  
△희포.진현 꼭 합격해서 술한잔 사줘라  
-영진  
△DUBS 39기 1학년 수습국원, 여러분의 첫 발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그대들의 끼와 열정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방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 3학년 국원들도 또 다시 시작된 방송 함께 열심히 해요. -Solveig  
△랑선이 힘내고 예뻐져라 많이많이.  
-랑선이! 따라 예뻐지고 싶은 친구  
△재영이가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갑니다. 건강하게 다녀오길...  
-Dussa 팬클럽회장

**안방길**  
축하합니다  
△관경학부 96학번 이해경님의 지난 4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민순입니다.  
-새까만 삼구  
△근호의 취지 시험 합격을 축하함.  
△일호 오빠, 새로운 couple 탄생  
추기추카  
△호야 2학기 과제 된 거 축하!  
준혁아, 현정언니, 미주도 모두모두 축하! 화려한 2학기를 위해 모두 열심히 해주길 빌어요  
-21C의 신화창조 찬란한 동국대학교 97학번 현의예과 천재소녀로부터  
△수현, 해주, 지영, 한희림 동안 즐거웠구 아무로도 친하게 지내자. 특히 지영 부 과대 된 것 축하한다.  
한·택·내! -막내  
△이종대(법학) 복학을 축하하며 -남이  
△정태야 네가 과의 구원자 축하한다.

네가 갑자기 어른스러워 보였다.  
-예쁜 언니 표

**수고하셨습니다**  
△YOU LOSS! 보세요... 1학기 동안 모두들 수고 많았구요.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의 결실을 2학기 때 멋지게 이롭시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4기 은영  
△동일선언 개강총회 완전성사를 위해 고생한 집부를 고생했수... James, 제과리, 총대표 길이길이 영생하자  
-치화자찬 총대표  
△민족 국사학과 학회들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학우의 민수 무장을 빕니다. 光  
△술메리아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12기 Bass였던 총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스머프를 다시 봐서 너무 좋다. 2학기 배우년 공연 성사시키고, 대중적 통일 운동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05

△휴형,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꼭 합격하시길. -상식이아  
△새여사 회장님 모현경 정기간엔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더라 조매대 더 고생해라. 싸랑해요... -짹짹는 女  
△관경 새내기 2학기 과제 문제. 율씨미 해라. 글구 우리 관·경인 잘 지내 봅시다. 목격담 경원 언니, 보고 싶어요. 해진, 정연 싸랑해! -동국 공주 보혀니  
△불교 학생회 법우를 열심히 합니다. 임원단들 특히 열심히 해야겠조. -Fe

**알립니다**  
△9월 10일을 기억하세요. 법정학부 1학년 개강파티 하이에서 있습니다. 다함께 어울림의 한자리를 만듭시다. 안나오는 사람=OUTSIDER  
-말신이의 대변인

**그리고...**  
△사랑하는 영정이! 이 세상 영원히 사랑할께다. 응글리쥬 페이스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상으로 사랑할께다.  
-이 세상 최고의 남자이자 영혼이 순수한 이가